

AI·디지털 기술 활용 생활밀착형 실증 본격화

무더위 썩~ 수경시설 18곳 가동

강남구, 8개 기업과 업무협약 행정·민원·복지 등 현장 검증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이날부터 구청 민원창구와 주민센터, 버스정류장, 복지시설, 양재천 일대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는 제4회 '강남, AI가 살아 되는 지능형 도시'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8개 기업을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은 ▲위디에스 ▲레인보우컴퍼니 ▲제로믹스코리아, 발타타가자, B&C&S 등 5개 기업이 보조금 지원으로, 인맥대, 파릴리아, 프리버티 등 3개 기업이 실증 장소만 제공하는 기획재정영에 참여한다.

이번 실증사업은 행정, 민원, 교통, 복지, 안전, 에너지,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의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이번 실증을 통해 민원 접근성과 행정 효율, 교통안전, 안전, 공공시설 관리, 에너지 절감, 친환경 등 도시전체까지 생활 속 변화를 검증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행정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구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조성명 강남구청장(가운데)과 기업 대표들.

조성명 구청장은 "단순히 기술 도입을 넘어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AI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과 적극 협력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강남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로봇을 배치하고, 노인복지관에 는 치매 예방 교육과 정서적 교감이 가능한 반려 로봇을 보급해 취약계층의 맞춤형 관리를 지원한다.
구청 민원실과 주민센터에는 스마트 자율주행 안내 로봇을 배치해 방문객에게 길 안내와 행정 절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하며 민원 대기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이와 함께 태태로로 일대를 중심으로 배달 로봇을 활용하고 실외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도 시범 운영하며 도심형 로봇 거점 인프라 구축의 기술적 타당성과 보행환경 안전성을 다각도로 검증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nimilbo.co.kr

양천구, 물놀이터 5곳 순차 개장

양천구는 무더운 여름철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바다분수와 물놀이터 등 지역내 수경시설 18곳을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운영 시설은 ▲바다분수 ▲일반분수 11곳 ▲물놀이터 5곳 ▲연못 18곳이다.
대표 시설로는 파리공원의 바다분수, 해누리분수광장, 안양천실내생태공원 분수 등이 있다. 특히 파리공원은 바다분수를 하루 4회, 음악분수를 하루 3회씩 낮 12시부터 오후 7시20분까지 교대로 운영해 도심 속 청량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어린이들이 온몸으로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물놀이터 5곳은 이달부터 차례로 개장한다. 운영 장소는 안양천가족공원, 백석어린이공원, 반곡어린이공원, 경인어린이공원, 한울어린이공원 등 5곳이다.

가장 먼지 물을 여는 '양양천가족공원 물놀이터'는 오는 20일 개장해 9월까지 운영된다. 약 1000㎡ 규모에 물터널, 물바구니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다

무더위 썩~ 수경시설 18곳 가동

7월1일부터는 권역별 어린이공원 물놀이터가 운영을 시작한다. 유물에서 파울린 물이 흐르고 분사형 물안개가 특징인 목3동 백석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조합 놀이대와 대형 우산분수가 있는 신월1동 반곡어린이공원, 바다분수와 발을 담글 수 있는 개울물이 마련된 신월3동 경인어린이공원, 숲 속 지형을 활용한 대형 물터널이 돋보이는 물바구니가 있는 신월7동 한울어린이공원 등이 여름철 동네 피서지로 번신할 예정이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저서물호수공원 어린이 물놀이장'도 개장한다.
박소진 기자 zini@sinimilbo.co.kr

도심 속 시원한 휴식 즐겨볼까?

금천구도 13곳 1일 1~3회 운영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이달부터 바다분수와 벽천, 계류 등 비점유형 수경시설 13곳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경시설 운영은 폭염 속 주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시원한 휴식과 도심 속 신선공기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구는 올해 고유의 상황에 따른 에너지 절감 필요성을 반영해 운영 방식을 효율적으로 조정했다.

운영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9월 까지다. 시설별 특성과 이용 환경을 고려해 하루 1~3회, 회당 30분씩 운영한다. 시간대별 이용 수요와 기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설별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예정이다.

운영되는 시설은 ▲금천구청역 앞 ▲가로공원 ▲산기슭공원 ▲효안산김길공원 ▲신기슭공원 ▲금빛공원 ▲독산3동 다목적광장 ▲순교안세묘역 주민터 ▲금천복합공원 ▲금하늘길 ▲시흥계곡 ▲안현안산숲길 ▲금래중앙공원 등 총 13곳이다.

시흥계곡과 금하늘길의 계류형 수경시설은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금천복합공원은 대형 폭포시설을 활용해 시원한 경관을 연출한다.

또한, 금천구청역 앞과 가로공원, 금나래중앙공원의 바다분수는 유동 인구가 많은 생활권 중심지에 위치한 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이대우 기자 yy@sinimilbo.co.kr

동작구, 10·24일 노무·세무 상담 소상공인·구민 경제활동 지원

동작구는 노무·세무 관련 법령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구민을 위해 '찾아가는 노무·세무상담'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월부터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2~4시에 동작구청, 동작 취업지원센터, 동주 주민센터 등에서 노무·세무 분야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다.

상담 분야는 ▲노무(노동관계법 위반 위약분야) ▲안전(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사업장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자료) ▲세무(부가·소득세 절세 및 국세·지방세 관련 분야) 등이다.

현장에서는 공인노무사와 공인세무사가 상담위윈으로 참여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6월 상담은 오는 10일과 24일(노량진 동작취업지원센터 교육실·노량진로 140 메가스터디센터 2층)에서 진행한다.

모집 신청은 노무·세무 분야 4명씩이며, 상담일 전 주 금요일(6월 5일, 6월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참여자는 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상담은 사전예약 후 지정된 시간에 건담 30분씩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대우 기자 yy@sinimilbo.co.kr

북촌 한옥체험업 6년새 47~168곳... 종로구, 신규 등록 제한 검토

이달 의견 청취·전문가 자문... 세부 내용 수립 예정

한옥체험업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 조정 등을 통해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이달 중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후 세부 내용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 47개에서 현재 168곳으로 급속히 늘었다.
이에 구는 북촌 가운데 한옥이 가장 밀집한 가회동 31번지와 11번지 일대 북촌1구역을 대상으로

이달 의견 청취·전문가 자문... 세부 내용 수립 예정

위에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사는 한옥의 형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한옥체험업의 용도가 허용되고 있으며, 2020년 47개에서 현재 168곳으로 급속히 늘었다.
이에 구는 북촌 가운데 한옥이 가장 밀집한 가회동 31번지와 11번지 일대 북촌1구역을 대상으로

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관광과 주민 실익이 공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촌 한옥마을은 밀려드는 인파로 인해 주거 공간과 관광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구는 주민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객 방문 시간을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대우 기자 nice@sinimilbo.co.kr

강동구, 올해 전통시장 5곳 현대화... 노후 시설 교체·쿨링포그 설치

강동구가 전통시장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사립비 17억5000여 만원을 확보하고, '202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 공모 사업에 강동구는 총 5개 시장(고분다리전통시장, 명일전통시장, 상내전통시장, 둔촌역전통시장, 암사동합참시장)이 선정돼 서울시 자

강동구, 올해 전통시장 5곳 현대화... 노후 시설 교체·쿨링포그 설치

구 중 가장 많은 선정 성과를 거뒀다.
사업비는 서울시와 강동구, 시장이 분담한다. 구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구비를 확보했으며, 폭염이나 장마가 시작될 시점에 시장 이용 환경을 개선할 나날 계획이다.
시장별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둔촌역전통시장은 노후 차량(어린이)을 철거하고 우천·강설에 대비한 덮이붕(개노파)을 설치한다. 암사동합참시장은 지평형 토포(이케이드) 노후 패널을 교체해 장마철 누수·누전을 예방하고, 명일전통시장과 고분다리전통시장은 각각 증발방망장치(쿨링포그)를 설치해 여름철 폭염을 저감하고 공기 정화 효과를 높인다. 상내전통시장은 기존 상점외벽을 새로 단장하고 LED 전광판을 교체해 시장 외의관과 홍보 기능을 새롭게 한다. 아울러, 지난해 중추문화기업부가 주관한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서 김동북초리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최종 선정돼 김동북119안전센터 뒤편에 27면의 공영

주차장이 들어선다. 지난 5월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건물 철거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준공 예정이다. 주차장이 건립되면 인근 지역의 주차난과 시장 이용객의 주차 불편이 해소되고 시장 접근성도 개선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전통시장 이용 환경이 한층 개선되고, 더 많은 주민이 활기찬 시장을 찾아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대우 기자 nice@sinimilbo.co.kr

이달부터 식중독 예방 위생 관리

은평구, 배달 음식집 지도·점검

은평구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내 식중독위생관리사업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집중 위생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추진 과제는 ▲위생 지도·점검 강화 ▲위생관리 자율점검도 제작·배부 ▲식중독 예방전단지 발송 ▲식중독 예방 캠페인 실시 등이다.
구는 식품위생과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재·보관 상태, 냉장·냉동실 온도 유지, 조리장 및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소

비기밀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식중독 위험이 큰 김밥과 회 등 패스트푸드와 배달 전문 음식점에 대해서는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식중독 예방 집중점검포'를 배포·배부하고, 위생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식재·보관 여부·보관·대조·배식까지 단계별 위생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전단지 발송'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여름에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촉구한다"며 "예방 중심의 지도·점검과 홍보 활동을 최선으로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대우 기자 nice@sinimilbo.co.kr

간추린 뉴스

강서구, 4~13일 '스테이지 인 마곡' 거리 공연

강서구는 오는 4~13일 마곡문화거리에서 거리공연 프로그램 '스테이지 인 마곡(STAGE IN MAGOK)'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거리예술인에게는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즐기는 '문화도시 강서'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지난 4월 공연단 선발을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28개팀 모집에 총 298개팀이 지원해 10대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거리예술인들의 높은 관심과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행사 기간 도래, 댄스, 미술, 기악 연주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은 5호선 발산역 1번 출구 앞 마곡문화거리에서 매주 금, 토, 일요일 총 8차례 걸쳐 관객을 찾는다. 우선시에는 발산역 지하광장으로 장소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박소진 기자 zini@sinimilbo.co.kr

관악구,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8~19일 모집

관악구는 최근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해 '오늘만큼 청년통장', '희망때 청년통장'의 2026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8~19일이며,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먼저 '오늘만큼 청년통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구가 유일하게 전액 구비를 추진하는 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청년 인구 비중을 가진 지역 특성을 반영해 2020년부터 선

도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올해 신규 참여자 100명을 선정한다. 참여자가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고 근로 유 지 등 약정 조건을 충족하면 구가 동일한 금액인 15만원을 1대1로 매칭 적립해 준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 청년이다.
문민이 기자 mmh@sinimilbo.co.kr

중구인구지원센터, 교육·소통 프로그램 제공

중구(권한대학 배후역)는 '중구1인구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빠른 회신 수 증가와 함께 지역내 1인가구 소를 거점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이달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아우르는 교육과 소통·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1인가구의 일상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먼저, 청년들을 위한 경제교육이 진행된다. 건전한 카드 사용법과 주식 투자 실전, 청년 자립 지원 정책 등을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3회에 걸쳐 배울 수 있다.
중장년을 위한 생활 밀착형 강좌도 마련했다. 4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에 지원하는 '재로 일하기'가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린다. 개인 성장 과외와 강점 찾기, 정보탐색 등을 통해 재취업을 돕는다.
중장년 남성 1인가구를 위한 '피크수, 쉼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새 계절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6월을 맞아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이대우 기자 yy@sinimilbo.co.kr



금연지도와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이 하나하거리 일대에서 민·관 협동 금연 캠페인을 실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북구, '세계 금연의 날' 맞아 금연 캠페인

성북구는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5월31일)을 맞아 최근 민·관 합동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며 지역사회의 금연 문화 확산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담배의 유해성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담배 없이 사는 건강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구의 대표 금연거리인 하나하거리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성북구 금연지도원과 금연 단속원, 서울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금연 홍보 피켓을 활용한 거리 캠페인과 담배

공포·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치며 금연 실천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확대된 대안교육기관 금연구역 지정 내용도 안내했다. 이를 통해 전자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소년 흡연 예방 인식 확산에 힘썼다.
문민이 기자 mmh@sinimilbo.co.kr

서대문구, 신촌로 일대 한해정원 18곳 조성

서대문구가 신촌로 일대 18곳에 가로수 아래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한해정원'을 조성했다.
구는 도심 녹지를 제고하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은 물론 노후 가로수 교체와 들뜸 현상도 일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18곳을 조성하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관내, 주민, 학생, 주민, 학생, 주민, 학생 등 계절별로 서로 다른 색깔을 내는 다양한 식물들을 조화롭게 심어 도심 가로경관에 생동감을 더했다.
특히 보행량이 많은 구간에는 인조 잔디 매트를 설치했으며, 특히 인대를 활용한 조성과 주민 참여형 유지관리 체계로 사업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구는 도심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주민 중심의 녹지 및 문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에 구민 참여와 유휴 공간유지를 발굴해 활용하고 주민 녹색 치유 공간을 조성하는 도시재생뉴딜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대우 기자 nice@sinimilbo.co.kr